

따상이면 바로 삼바·셀트리온 이어 ‘넘버3’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기업공개(IPO) 기록을 새로 세우며 흥행 대박을 낸 SK바이오사이언스가 18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증거금 63조6000억이 몰리면서 카오게임즈의 58조5500억 원을 경신했다. 경쟁률도 1275.47대1을 기록해 SK바이오팜의 835대1보다 높았다. 이제 관심은 역대급 기록을 세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이후 돌풍을 이어갈지 여부다.

시초가 5만8500원~13만 원 결정
최고 시초가로 상한가 시 약17만원
SK바이오팜 이어 흥행 기대감 UP

●상장일 '따상' 하면 시총 약 13조 원

우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등판으로 기존 코스피 제약업계 서열에는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공모가 6만6000원으로 조달한 1조4918억 원을 포함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4조9725억 원. 이것으로만 평가해도 17일 코스피 중가 기준 제약부문 시총 순위에서 신품제약에 이어 5위다.

만약 투자자들의 바람처럼 상장 첫날 공모가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하고 상한가로 올라가는 '따상'이면 변화는 더 엄청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일 오전 8시30분부터 호가를 접수해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를 정한다. 따라서 시초가는 5만8500원~13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만약 시초가가 최고인 13만원으로 정해지고 상한가로 직행하면 주가는 상장일에 최고 16만9000원까지 오른다. 시가총액은 12조9000여억 원이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 이은 '넘버3'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지난 주 국내 기업공개(IPO) 기록을 갈아 치우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 접수 모습. 증거금 63조6000억 원, 경쟁률 1275.47대1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에 성공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18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뉴스1

의 경우 각각 상장일부터 3거래일 연속, 2거래일 연속상한가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주식의 상대적적으로 적어 따상은 물론 추가 상승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분석이 많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보면 기관 배정물량 1262만 2500주 가운데 85.27%에 해당하는 1076만2090주가 지난 15일에서 가장 6개월에 이르는 의무보유 확약을 했다.

상장 직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유통이 제한되는 주식이 기관투자 확약 비율을 포함해 SK케미칼, 우리사주 등 총 6760만2490주, 전체의 88.37%나 된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주식은 889만7510주(11.63%)에 불과하다. SK바이오팜(13.06%), 카카오게임즈(20.51%), 빅히트(19.79%)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따상상하면 '317주 큰손' 5000여만원 수익

SK바이오사이언의 일반청약 대표주관사 NH투자증권이 밝힌 배정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가장 많은 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는 증거금 68억2500만원을 넣고 317주(비례 316주, 균등1주)를 받았다. 한

국투자증권에도 171주(비례 170주·균등1주), 미래에셋대우는 195주(비례 194주·균등1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첫날 '따상'일 경우 공모가(6만5000원)의 160%가 올라 주당 10만4000원의 수익이 생긴다. 317주 투자자는 하루에 3296만8000원의 수익을 올리고, 171주와 195주를 받은 사람도 각각 1778만원, 2028만 원을 번다. 다음날도 상한가인 연상(따상상)일 경우에는 317주 '큰손'은 5000여만 원의 수익을 기록한다.

●최태원·최창원의 제약바이오 '쌍끌이 전략'

한편, 지난해 SK바이오팜에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상장 대박이 예상되면서 SK그룹에 부러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8년 지주사 SK디스커버리의 자회사인 SK케미칼에서 분사해 설립된 백신 전문기업이다. SK디스커버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최창원 부회장이 이끌고 있다. 지난해 상장한 SK바이오팜은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주) 계열이다.

고 최중현 회장 시절이던 1980년대부

코스피 제약업체 시총 순위	
회사	시총
삼성바이오로직스	47조5726억
셀트리온	39조6306억
SK바이오팜	8조7319억
신품제약	5조4839억
유한양행	4조4363억
녹십자	4조3357억
한미사이언스	4조1527억
한미약품	4조462억
충근당	2조2281억
대웅	2조1106억

※ 코스피 3월17일 종가 기준

SK바이오사이언스 의무보유 확약기간별 기관투자 배정		
확약기간	배정수량(주)	비중(%)
15일 확약	36만4380	2.89
1개월 확약	311만8610	24.71
3개월 확약	333만1000	26.39
6개월 확약	394만8100	31.28
미확약	186만0410	14.73
합계	1262만2500	100.00

※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터 제약산업에 공을 들여온 SK그룹은 최태원 체제에 들어서면서 SK(주)와 SK디스커버리 아래에 제약과 바이오 전문기업을 두고 적극 투자를 하는 '쌍끌이 전략'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SK(주)에는 화학합성신약연구전문인 SK바이오팜과 원료의약품 전문인 SK바이오텍이 있고, SK디스커버리 계열사에는 SK케미칼과 SK플라스마,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다. 서로 주력 분야가 달라 같은 시장을 두고 경쟁할 일 없이 제약·바이오의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동화약품, 유준하 신임 대표 선임



동화약품은 15일 신임 대표이사로 유준하 부사장(사진)을 선임했다. 유준하 대표이사는 경희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입사해 마케팅, 영업, 인사, 총무 등에서 32년 간 근무했다. 동화약품에서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까지 승진한 케이스는 2008년 조창수 전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유준하 신임 대표이사는 “30여 년 동화약품에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임직원과 함께하는 리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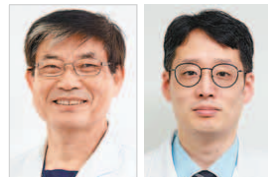
동국제약 ‘센시안’ 모델에 배우 이시영 발탁



동국제약은 압박용 밴드 ‘센시안 메디슬리머’의 모델로 배우 이시영(사진)을 발탁하고, 온라인 티저 광고를 시작했다. 이시영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에서 액션연기로 화제를 모았고,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건강한 이미지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센시안 메디슬리머’는 발과 다리의 순환

포인트까지 압박하는 점진가압 압박용 밴드로 혈액 고임을 막는 1등급 의료기기이다. 양발 타입의 ‘센시안 워크’와 발목 타입의 ‘센시안 릴렉스’가 있으며 3월 신제품 ‘센시안 나이트케어’가 론칭될 예정이다.

분당차병원, ‘재발성 교모세포종’ 치료법 개발



조경기 교수 임재준 교수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의 신경외과 조경기, 임재준 교수팀이 치료제가 없는 재발성 교모세포종의 면역세포치료법을 개발했다. 뇌종양의 일종인 재발성 교모세포종은 기존 치료제가 잘 듣지 않고 암 진행이 빨라 평균 생존 기간이 6~8개월 정도에 불과한 난치암이다. 조경기, 임재준 교수팀은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에게 면역세포치료제 CBT101를 투여해 평균 생존 기간이 연장된 것을 확인했다. CBT101는 환자의 혈액에서 NK세포를 추출한 뒤 체외에서 증식시켜 제조한 면역세포치료제로 차바이오텍에서 개발 중인 신약이다.

만족도 높은 덧니 교정엔 정밀한 치료계획 필수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덧니는 보통 유치가 일찍 빠지거나, 반대로 늦게 빠지는 경우, 또는 이가 나올 때 주변 치아가 이미 자리를 차지해 공간이 부족한 경우 등에 발생한다.

송곳니는 전체적인 치아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다. 치아 간 마찰을 줄여 어금니를 보호하고 얼굴 표정을 만드는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앞니와 작은 어금니가 나온 이후에 늦게 맹출하기 때문에 덧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치아기도 하다.

덧니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어금니 등의 발치를 통해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발치를 할 때 고른 치아 배열을 위해 부족한 공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고 동시에 환자의 얼굴 옆모습이나 입술 돌출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입술의 전

방 성장보다 코와 턱의 연조직 성장이 더 뚜렷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아이는 더욱 세심하게 잔여 성장량과 개개인의 성장단계까지 여러 방면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밀하게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덧니교정을 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치아 교정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만큼 교정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꼼꼼히 관리해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치열을 움직여 배열하는 치료인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을 인정한 교정전문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니 교정은 투명한 재질로 티가 잘 나지 않고 탈부착이 가능한 투명교정, 발음이나 이물감을 최소화한 설측교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개인마다 적용 가능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원해 검사 후 교정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다.

박대준 강남치아교정
바른미관들기치과 대표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18일(목) 음력: 2월 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박: 서	 소	행운색: 흰색 길박: 서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박: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박: 북	 용	행운색: 흰색 길박: 서	 뱀	행운색: 노랑 길박: 중앙
현실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엎졌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며 금전문제도 해결되니 경솔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정신적으로는 활발하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라.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횡재수가 있는 날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많은 노력과 정성과 활동이 필요하다.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모험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자신의 반성과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박: 동	 양	행운색: 흰색 길박: 서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박: 중앙	 닭	행운색: 노랑 길박: 중앙	 개	행운색: 흰색 길박: 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박: 동
냉정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청산하라.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주변인을 믿지 마라.	합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은 법이다. 오늘은 어떠한 노력도 통하지 않는 때이다. 당신도 기력의 회복과 길한 운세를 기다려야 한다. 오늘은 반만 일이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므로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되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크게 이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취침 시 서남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오늘의 날씨			18일(목)		
서울	0/20	인천	0/20	춘천	0/20
	3 18		4 13		1 18
강릉	30/30	대전	0/20	전주	0/20
	5 14		4 19		4 18
광주	0/20	대구	0/0	부산	0/0
	5 20		4 18		9 16
창원	0/0	제주	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6 17		10 16	날씨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38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성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